

한국원자력학회
Korean Nuclear Society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과 학회의 역할

최 성 민

KNS 부회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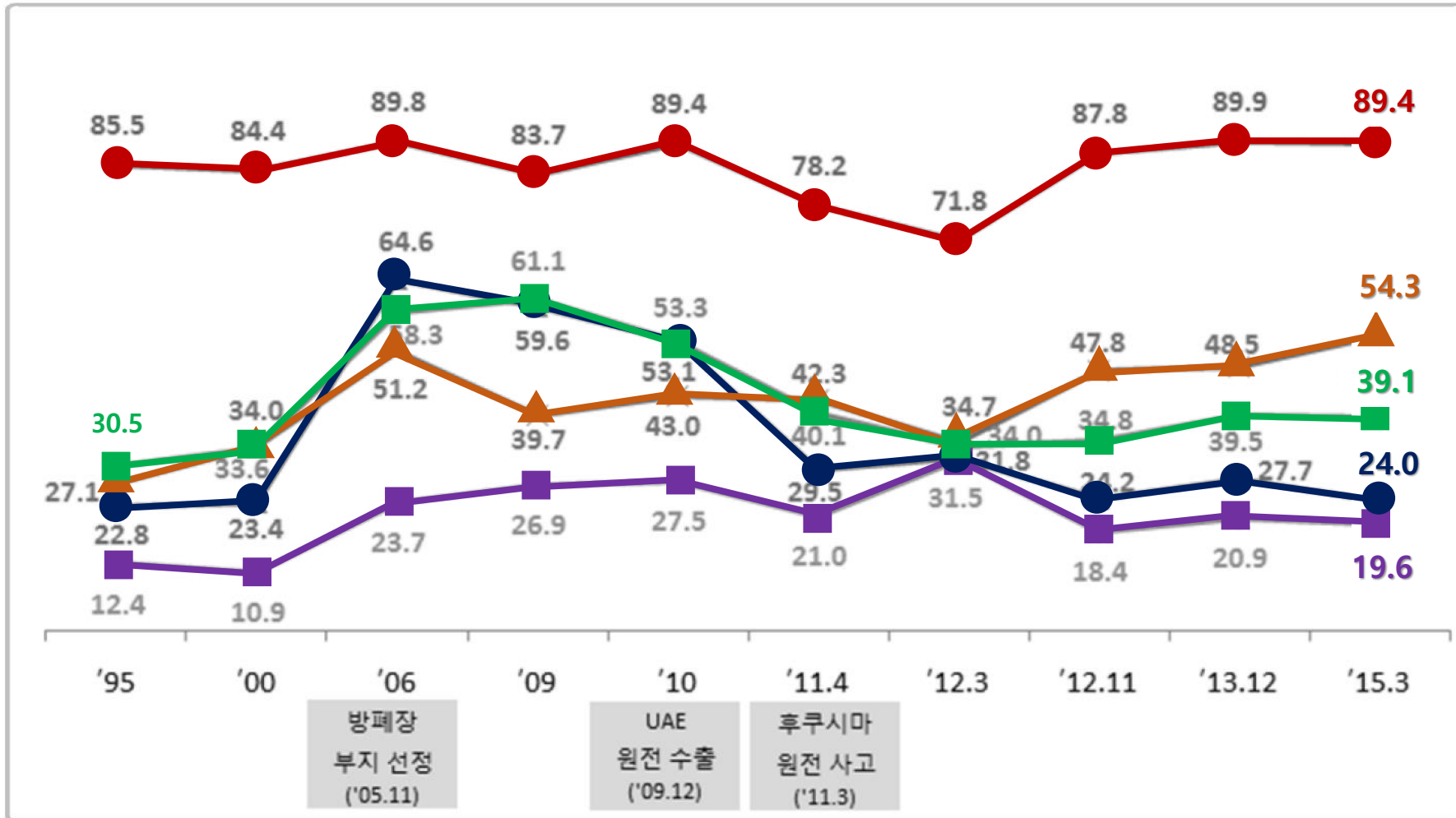
- 원자력학회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 원자력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지난 5년간의 활동
- 향후 학회의 역할

원자력학회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1차: 2018년 8월 (한국리서치)
- 2차: 2018년 11월 (한국갤럽)
- 3차: 2019년 2월 (한국리서치)
- 4차: 2019년 5월 (마이크로밀엠브레인)
- 5차: 2020년 11월 (한길리서치)
- 6차: 2021년 9월 (엠브레인퍼블릭)

원자력 국민인식 주요지표의 추이 (2000-2015)

(2015년) 원자력발전 필요성은 높으나 안전성 및 거주지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원전 필요성

원전 현수준 유지
(확대: 29.9, 축소: 14.1)

원전 안전성
(안전하지 않다: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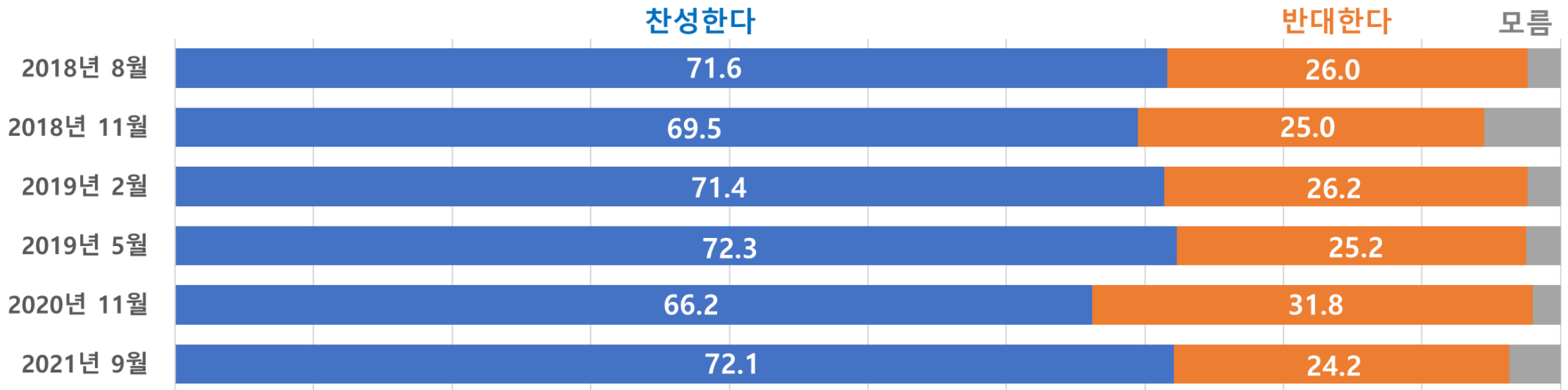
방폐물 안전성

거주지 수용성
(반대: 78.5)

원자력발전 이용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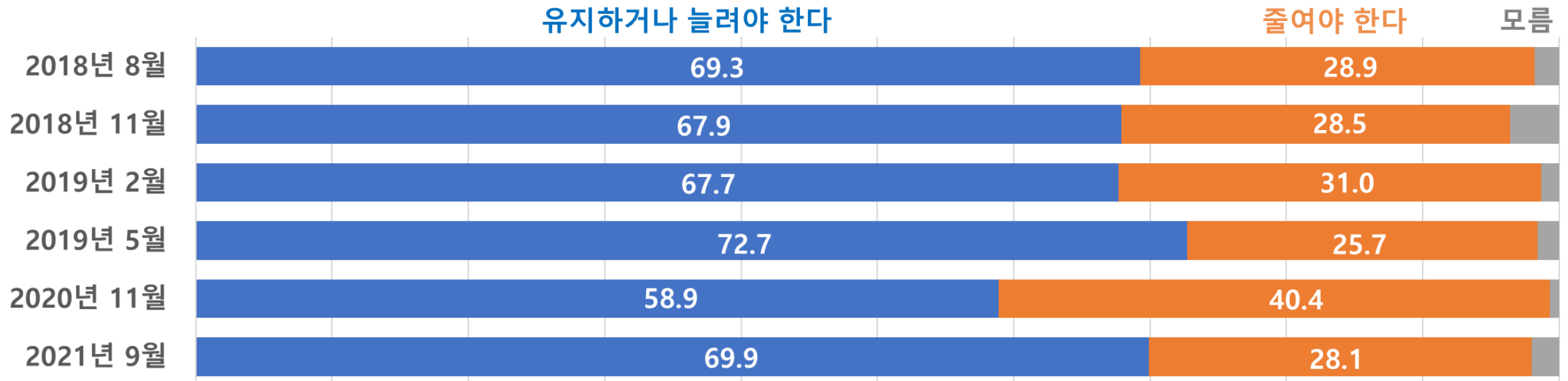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발전 비중

-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
-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인식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옴.
(유지 또는 확대 64%, 축소 24%. 2020년 6월 조사)

문) 현재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기생산의 25~30% 정도를 담당합니다. 귀하께서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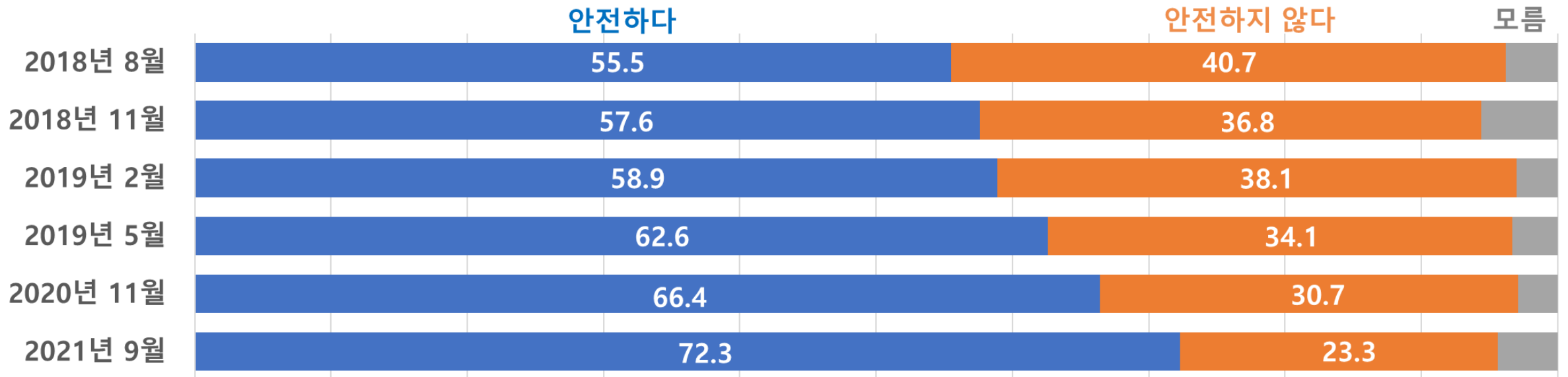


2021년 9월: 늘려야 한다=35.9%, 유지해야 한다=34.0%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적극적인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 및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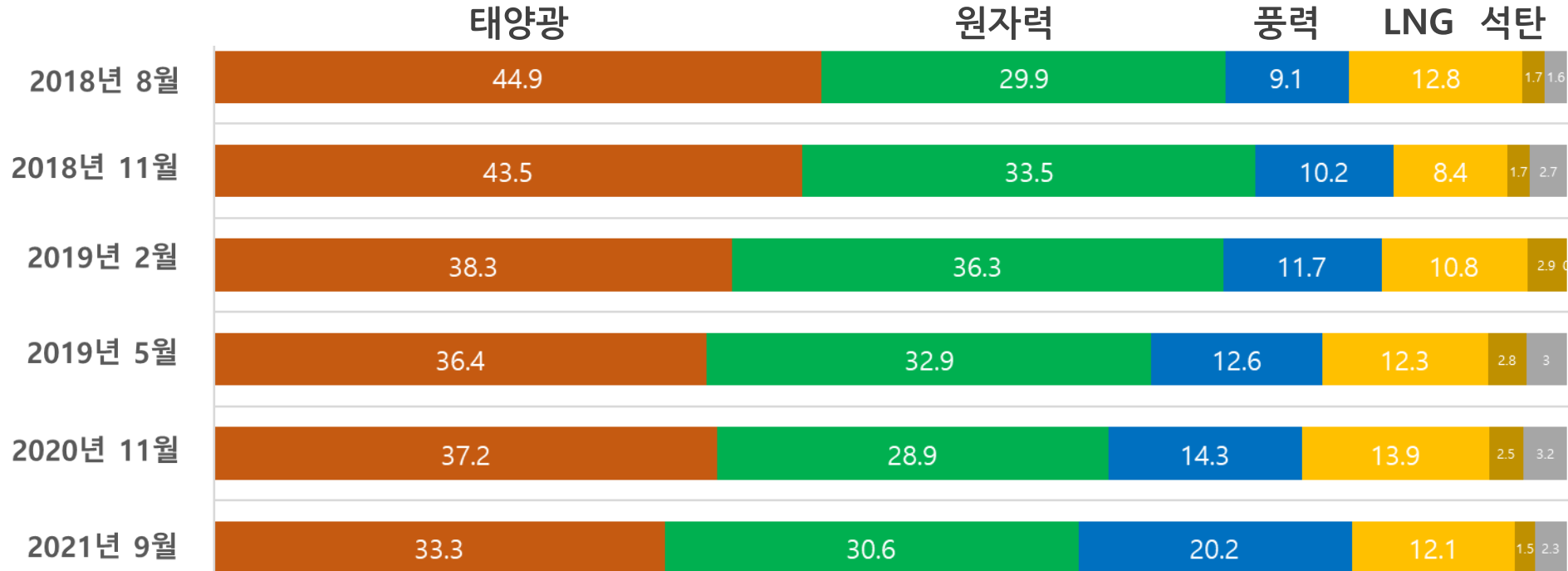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

-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약 30% 유지
- 태양광은 조금씩 감소 (약 10% 감소), 풍력은 조금씩 증가 (약 10% 증가)
-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적정수준에서 함께 가야함

문)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은 다음 중 무엇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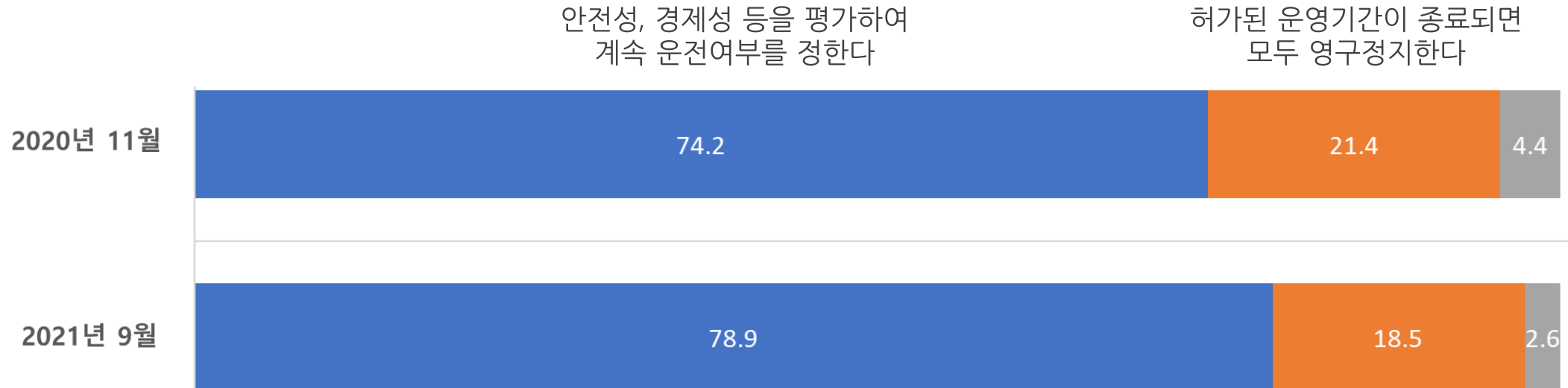


원전의 계속운전

- 국민 10명 중 7~8명은 올바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자.

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는 향후 10년 내에 최초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됩니다.

귀하께서는 최초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다음 중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원자력 인식

- 성별, 연령, 이념성향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모두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음 (진보 성향 응답자도 54.1%가 찬성)
- 18세-29세 젊은 층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 (원자력발전 이용 76% 찬성, 18% 반대).

(2021년 9월 조사결과)

		사례수	원자력발전 이용			원자력발전 비중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찬성 한다	반대 한다	모름/ 무응답	확대	유지	축소	모름/ 무응답	안전 하다	안전 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전체		(1000)	72.1	24.2	3.6	35.9	34.0	28.1	2.0	72.3	23.3	4.4
성별	남자	(498)	76.2	20.7	3.1	42.8	30.2	25.8	1.2	81.0	15.6	3.4
	여자	(502)	68.1	27.8	4.2	29.2	37.7	30.4	2.8	63.6	30.9	5.5
연령	18세~29세	(175)	76.0	18.0	6.0	28.0	51.5	19.7	0.9	73.7	21.5	4.8
	30대	(152)	64.0	31.0	4.9	31.0	35.8	31.5	1.8	72.3	24.3	3.4
	40대	(187)	58.8	38.6	2.6	23.5	30.1	45.7	0.6	64.5	30.4	5.0
	50대	(195)	72.4	25.4	2.3	39.7	26.6	32.0	1.7	67.7	28.9	3.4
	60세 이상	(291)	82.4	14.5	3.1	48.8	29.9	17.4	3.9	79.5	15.5	5.0
이념성향	진보	(285)	54.1	44.0	1.9	20.1	28.1	51.1	0.7	59.0	38.2	2.8
	중도	(330)	74.7	21.5	3.8	39.9	36.0	22.2	2.0	76.7	17.6	5.7
	보수	(300)	85.5	11.1	3.4	51.0	33.5	14.9	0.6	81.2	15.9	2.9
	모름/무응답	(85)	75.4	15.0	9.6	20.7	47.1	20.6	11.6	68.6	21.3	10.1

원자력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지난 5년간의 활동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민인식 관련 환경 변화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원자력 홍보 활동이 실질적으로 전면 중지되었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변경 및 역할 변화)
-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국민인식 제고의 원동력으로 작용)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주요 학회활동 (2017-2022)

-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성명서/보도자료 배포
- 학회장 인터뷰 및 기고 활동
- 원자력 이소TV 개설 및 운영
- 이슈 및 소통위원회 뉴스레터 KNS Café 창간
- 원자력/방사선 책자 발간
- 안전교육 시민단체와 협력
- 교사연수프로그램 시행
-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 운영
- 울진 산불피해복구 성금모금



20대 대선 후보 TV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3일과 2월11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TV토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나뉘대로 차별화된 에너지 및 원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제기된 원전의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처분, RE100, 탄소노미 등, 일반인은 물론 원자력 학회 회원들도 궁금해 할 질문과 주장에 대해 학회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실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에너지/원자력 정책을 도모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좌담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되어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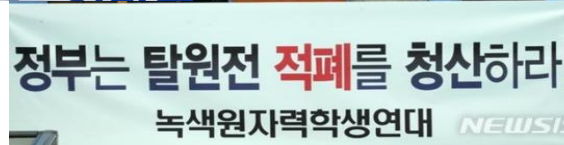
문의: 정동욱 교수 (중앙대학교, 02-820-5325), 한국원자력학회 사무국 (042-826-2614)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

(학회 회원/비회원 모두 포함, 2017-2022)

- 신고리 5, 6 호기 공론화
- 학계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언론기고 및 방송활동
- 언론/방송의 적극적인 원자력이슈 보도
- 에너지 이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전국적인 원자력 살리기 100만명 서명운동
- 원자력 시민단체의 태동 및 헌신적인 활동
- 페이스북, 네이버, 카톡방 등 SNS 활동
- 유튜브 채널 운영
- Stand Up for Nuclear 등 국제연대 활동
- 원자력 관련 책자 발간
- 학생/교사/일반인/정치인 대상 강연활동





Stand Up for Nuclear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원자력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 잘못된 정보(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해야
- 원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 생활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 초중고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바로 잡아야
-

학회의 역할

-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
- 원자력 이소TV 등을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 원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강연프로그램 운영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
- 교사연수프로그램, 학교방문강연 프로그램 확대
- 초중고 교육에 올바른 원자력 이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노력
-
- 학회의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확보
-

**학회 회원 및 회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